

“미래의 문학인들 창작품 접수받습니다”

# 대학 주관 최대 문학상 공모

전북대, 가람 이병기 시·최명희 소설 등 31일까지 신청접수  
당선자는 10월 11일 발행 대학신문 개교기념 특집호에 발표

전북대학교가 대학이 실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학 공모전인 '가람 이병기 청년 시 문학상'과 '최명희 청년 소설 문학상'(이하 문학상)을 공모한다.

총 상금 800만원 규모로 전북대신문 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대표 장성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이며 시는 시조

포함 세편 이상, 소설은 한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 작품은 전북대신문 개교 기념 특집호(10월 11일 예정)에 발표된다. 작품은 전북대신문방송사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전북대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과 '혼불'의 최명희 작가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총상금 규모를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문학상의 모태는 1955년부터 운영돼 오던 전북대신문 학생작품 현상 모집이며 최명희 작가 역시 지난 1971년 '정육이'라는 작품으로 현상 모집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올해로 17회째 맞은 문학상은 김경주·이혜미·조율·이서령 시인과, 손흥규·정아리·김학찬·이갑수 소설가 등 굵직한 신예를 발굴하며 명실상부한 문학인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문학상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북대신문방송사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중기 수출지원사업 성과 공유

전주시는 28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시장과 쉐이엔이, 쉐이엔코 등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에 참가한 6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호남권역 대학 학생부전형 우수사례 공유

전북대서 전임·위촉 사정관 참여 공동세미나 열려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호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호남지역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협의회 평가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가 전북대에서 개최된 것. 전북대와 전남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남지역대학 전임 및 위촉입학사정관들과 대입전형 업무 담당자들, 교사 등 1백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대를 비롯한 전남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광주교육대 등 호남지역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사례 등에 관한 첫 공유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각 대학들은 특색에 맞는 학생부종합전형 개발 및 평가지표 등을 교류하고 대입 전형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이날 정명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의 '2018년 교육정책의 변화와 방재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팀장의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입전형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져 참가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해은 기자

## “비록 학교 떠나더라도 전북교육 발전 힘쓸 터”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명퇴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35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감한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서거석 전 총장이 8월 31일 명예 퇴직한다. 이는 교수 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친 지 35년만이다.

전북대 제15·16대 총장을 지낸 서 전 총장은 총장 재임시절 전국 대학 발전의 선도모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으며 국립대 평가에서 전북대를 1~2위로 도약시키는 등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대학의 위상을 명문대로 높였다.

또 전국 4년제 204개 국·사립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9대 회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기도 했다.

서 전 총장은 교수직에서 물러나도 전북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이다.

서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퇴직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비록 학교는 떠나도 전북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열정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 2017년도 초·중·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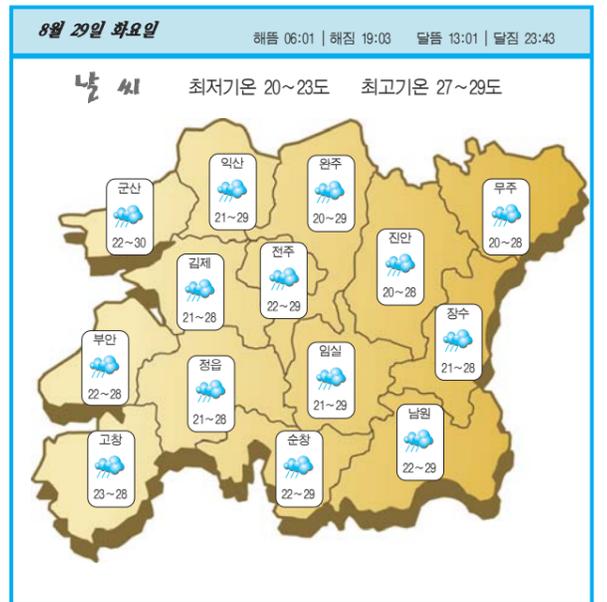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에 실시된 2017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2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초졸은 68명이 응시해 50명이, 중졸은 230명이 응시해 164명이, 고졸은 729명이 응시해 443명이 합격하였다. 합격률은 각각 초졸 73.53%, 중졸 71.30%, 고졸 60.77%를 보였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시험에 응시한 76세 수험생이다.

합격증서는 28일부터 한 달간 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 신분증만 가져 가면 수령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노후화된 팔복동 산단 '일하고 싶은 곳' 만든다

안내판 16개 교체·공장 담장 벽화그리기 등  
전주시, '아름다운 산단가꾸기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가 노후화된 팔복동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팔복동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편익증진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산업단지 환경 정비사업인 '아름다운 산단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내용은 산업단지 입간판 정비, 인도 잡초 제거 및 정비, 공원 환경정비, 인도변 공터 화단조성, 담장 벽화그리기 등이다.

우선, 시는 팔복동 산업단지 내 녹이 슬거나 훼손된 산업단지 안내판 16개를 교체해 산단단지를 찾는 민원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주문화재단 및 전주시지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 전경경제통상진흥원 주변 등 산업단지 내 3개소 총 1,160m길이의 노후화된 공장 담장에는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밝고 긍정적인 산업단지 이미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빈 공터와

인도변에는 아름다운 계절꽃을 식재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찾고 싶은 산업단지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추석 전 까지 산업단지 주변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여름철 인도변 및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모두 제거하고, 팔복도시공원 등 산업단지 내 2개 공원에 대한 환경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 주도적으로 산단단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산단에 입주한 각 기업체에서도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평소 시 공정주변의 환경정비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환경정비와 함께 앞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행정장적 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를 행복한 고교로 만들어주세요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유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